

연중 제29주일(전교의 날)  
제 1 독서 : 이사 53, 10-11  
제 2 독서 : 히브 4, 14-16  
복 음 : 마르 10, 35-45

# 숲 정 이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르 10, 43).

## 강 론

## 소 리

### “전교-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김 준 호 신부 / 사목국장

하느님의 말씀은 사랑과 애정의 기반 위에서일 때만 비로소 본뜻이 전달된다.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 인간의 역사적 현실,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과 분리시켜 놓게 되면 그것은 사실 하느님의 말씀이 아닐 뿐 아니라 복음의 참다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기에 사도 바오로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다. 솔직히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많이도 사랑없는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진정 그리스도 없는 자신의 말만을 앞세우고 있는가? 복음선포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사실은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 안에서 실현될 때만이 그 의미가 살아 있는 것이 된다. 사실 예수님이 한평생 인간에게 계시해주신 것도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고,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 모두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신 것뿐이다.

“나는 세상에 불을 놓으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역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향한 당신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불 때, 내 이웃의 아쉬움과 필요에 하느님의 것, 곧 사랑으로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자이며 곧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따라서 전교하는 교회란 모름지기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화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사시는 그런 매개체이어야 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다행일 수가 없다는 감사와 경외심으로 차있는 신자야말로 사랑의 불씨가 되어 이웃에게 사랑의 불을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만 우리 역시 하느님 나라를 잡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교는 단지 교리의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직접 보고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일 것이다.

### “바자회와 난장”

지난주에 전국 체전이 끝났다. 도내 여러 곳의 경기장에서는 운동회가 열리고 전주에서는 난장이 섰다. 체전과 난장, 무엇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지는 몰라도 난장이 터진 옛 삼양사 터에는 갖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 파전 등을 놓고 정담을 나누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보통 사람들은 체전보다야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난장이 더 매력적이었던 같다.

그 기간에 중앙 성당에서는 ‘소년 소녀가장 돕기 바자회’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서신동 성전 친립금을 위한 바자회’가 숲정이 성당에서 열리고 있다. 바자회에서도 생활 필수품과 음식물을 판다.

난장과 바자회는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난장은 ‘시골에서 정한 날 이외에 특별히 며칠간 터놓은 장’이고, 바자(bazaar)는 ‘공공 또는 사회사업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벌이는 시장, 자선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있었던 난장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전국 체전의 분위기 조성, 그리고 외지 선수단에게는 이 지역의 특산물 소개와 판매가 그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성당에서 벌이는 바자회는 미리 정한 특별한 사업을 이루기 위한 기금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바자회를 열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은 성금을 낼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생필품도 사고 음식도 나누며,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㉞

### 숲정이 산책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③

# “선교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는 1784년 우리 선조들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여 선포한 자랑스런 역사를 갖고 있지만, 1794년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필두로 이 땅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해왔다. 그중 한국천주교회 초기 100년간 모진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103위 성인 중에 파리의방전교회 성직자들이 10분이나 된다.

한국천주교회는 1만명이 넘는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 2백 75만명의 신자와 6천명의 남녀 수도자 그리고 1천 6백명의 사제를 갖게 되었고, 매년 20만명의 새영세자가 늘어날 만큼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는 한국의방선 교회가 창설되어 1981년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선교 사제를 파견할 수 있었고, 우리 교구에서도 피테이 도눔 선교사(1957년 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Fidei Donum」 신앙의 선물에서 권고한 대로 사제가 부족한 교구에 파견되는 다른 교구 사제) 자격으로 1985년부터 페루에 3분의 신부를 파견해오고 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마르 16, 15)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선교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 교구 안에도 30년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해오신 3분의 외국 신부가 계신다. 지난 10월 3일 회갑을 지내신 지정환 신부, 오는 10월 28일 회갑을 맞으실 배영근 신부와 윤에릭 신부가 바로 그들이다. 회갑을 맞이하여 그동안 살아오신 에환을 정리해보고 선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벨지움 출신인 지 신부와 배 신부는 SAM(전교 협조회) 소속 사제로서 우리 교구의 요청으로 지 신부는 1959년 12월에 배 신부는 1961년 1월에 한국에 오셔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두 분 신부께서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무척 가난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6·25 직후라서 정치적으로 혼란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신부는 선교사로서 무엇을 베풀고 가르치기보다는 예수의 일생을 온몸으로 전하는 사목자로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지 신부-1961년 부안 본당에 부임, 85정보의 땅을 개간하여 그 땅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준 일, 1967년 임실 치즈공장을 설립하고 신용조합을 육성하면서 치즈공장마저 조합원 공동소유로 내어준 일...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지 신부는 우리들에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 깨달음을 주었다. 또한 1970년부터 다발성



신경 경화증으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성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장애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다. 형제애와 공동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배 신부-1962년 고창 본당에 부임, 45정보의 땅을 개간하여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고창에서 7년 동안 사셨고, 그후로 지금까지 교구장 비서로 주로 외국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공주사대와 전북대에 출강하시며 집집선교에 큰 몫을 하고 계시다. 그는 선교란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이라며 한국에 와서 제일 보람있었던 일은 고창 본당에 계실 때 신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살았던 일이란단다.

윤 신부-독일 마인쯔 교구 출신이고 피테이 도눔 선교사로 1962년 한국에 오셨다. 그는 주로 경북지방인 점촌, 김천, 낙산, 지례지역에서 사목활동을 하였고, 1982년 이곳 전주에 오셔서 인보성체수녀회 지도신부로 계신다. 제일 보람있었던 일은 1967년부터 1982년까지 경북 지례 본당에 있었을 때란다. 오지인 그곳에서 상수도를 개발하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기 전 5동네에 경운기를 기증하던 일, 신용조합·양돈조합을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던 일이란단다. 그는 전교란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고통을 극복하고, 각 사람이 얼마나 가치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란다.

우리 민족의 삶을 존중하며 온몸으로 복음을 증거한 3분 신부께 감사드리며 회갑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고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리자.

**주부사원모집**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김 금 주(벨라도)  
 (주)계몽사/  
 중로회원 남전주 지사  
 ☎ 88-8027 야간71-5827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 인 주 단**  
 김 한 중(요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개원 베드로의원**  
 외과·내과·소아과·비뇨기과  
 원장·전문의 정 욱(베드로)  
 유은주(프란치스카)  
 전주시 효자동1가 280  
 (한미주유소←중간→놀부보쌈)  
 ☎ 224-8777

**순 꼬리로만 고평**  
 ‘개 시’  
 전주역전 한양모델하우스 뒷편  
 서 정 필(요셉)  
 김 형 식(마태오)  
 별미회관 ☎ 72-5801

잡 관

“전교의 달 전교주일”

페루로부터 멋진 초대장이 날아왔다. “여기 페루의 아마조나스, 호수의 마을 뽀마코차스에서 2명의 한국인 선교 사제들과 2명의 선교 수녀들이 하느님의 은총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 차차뽀야스 교구의 도움과 한국 전주교구의 후원으로 이룩할 수 있었던 새성전과 사제관의 축성식에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페루에서도 오늘을 전교주일로 지낸다. 오늘 아마조나스의 산골 마을 뽀마코차스에서도 세계 선교에 대해 강론하고 헌금할 것이며 특별히 금년에는 새로 축성한 성전에서 전교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모를 프레아의 전주교구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바칠 것이다. 그곳에서 교구의 두 분 신부님과 성체회의 두 분 수녀님이 우리의 선교사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분들께 힘찬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행하는 그들의 선교사명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이 전교의 달에 휴가를 겸하여 현지 선교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러 잠시 귀국한 서정현 신부님에게서 은혜로운 선교 체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구에서는 우선 전주, 이리, 군산에서 신부님의 선교 체험을 신자들과 함께 나눌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욕심을 부린다면 다만 몇 분이라도 페루의 선교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장한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페루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니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11월 중순쯤에 출국하시는 서정현 신부님과 함께 페루를 방문할 신부님, 수녀님, 신자분들이 계시면 교구로 연락하기 바란다.

교 구 소 식

※ 윤애리·배요셉 신부 회갑미사 : 10월28일(월) 오전 10시30분 중앙 성당.

1. 축! 견진 : 10월27일 오전10시 대야 성당.
2. 나바위 제2 피정의 집 조경사업에 나무 기증하실 분 : 사제관 (0653)861-8183, 사무실 861-8182, 수녀원 861-9210.
3. 서신동 성당 바자회 : 10월17일-21일 9시-22시 숲정이 성당, 음식·음료 및 생필품 30중, 식권은 음식·음료수 코너에서만 유효, 유효기간-10월17일~21일.
4. 교도소 재소자 체육대회 : 10월22일(화) 오전10시 후원회원 참석바람.
5. 태아생명 보호미사 : 10월21일(월) 오전10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85-5098.
6. 혼인강좌 : 10월27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5,000원, 문의 85-5098.
7.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10월25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8. 청소년 종합 예술제 : 11월3일 성심여고 강당.
9. 초등부 교리교사 성탄 연수 : 11월9일-10일 나바위 성당 교육관.

- **성소모임** 사랑의 씨튼수녀회(피정) : 10월26일 16시-27일 16시 본원 (062)571-3004.  
 살레시오수도회 : 10월27일 오후2시-5시 가톨릭센터2층 평화신문사(062)55-0332.  
 한국외방선교회 : 10월27일 오후2시 광주 가톨릭센터 606호 (02)923-194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산과 들을 찾아나서는 계절, 자연 속에 자생하는 나무, 열매, 꽃, 야생동물 등 어느 것이든 손대지 맙시다. 한 사람이 한 번씩만 참으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 사무소**  
 ☎ (0652) 87-0088  
 (자택) 83-0087, 83-0088  
 호출기 012-681-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알선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바춤 대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샤넬안경원**  
 이순구(도미니코)  
 정병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신부 부케 전문점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범디도  
 ☎ 84-2628

숲심이 (950) 김병오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심람진 본원 : 매일 마지막 주일, 오전10시-오후4시30분  
 문의 : (0527)52-4241

**제주피정(피정 및 관광)**  
 2박3일 과정, 3박4일 과정  
 장소 : 제주시\*형제의 집 피정센터\*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서울 (02)516-3404, 548-7095  
 중부 (0431) 52-8559

**루벤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조민구(프란치스코)  
 유해미(마리아)  
 효자동 한양 운남아파트상가  
 ☎ 224-1696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1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1. 오늘은 전교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범석구신부님 특별강론)
  2. 사제피정: 21일~25일(피정관계로 새벽미사 없고 저녁7시30분에 말씀의 전례가 있습니다.)
  3. 미사시작 15분전에 오셔서 성가연습을 합니다.
  4. 날마다 그날의 성경구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5. 주일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6. 남전주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27일 완산여상(8시30분 미사없음) 7. 주일학교 어린이 가을 소풍: 27일 완산사신대(3시미사없음) 8. 축! 결혼: 27일 12시30분 신랑-김범희 신부-윤성숙
  9. 금주청소: 중노1기3,4번 차주청소: 중노1기5,6번
- ☐ 지난주 봉헌금: 876,790원 ☐ 교무금: 901,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 ※ 오늘은 전교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1. 여성단체 성지순례: 21일 오전8시 출발. 시간업수바람. 2. Pr 강부교육: 24일 오전10~16시까지. 강사-아말라의 테레사 3. 유아세례: 26일 오후6:30 사무실에 신청바람. 4. 빈집사회회: 26일 오전10시 5. 울뜨레아: 27일 공식미사 후 6. 회장단회: 27일 저녁미사 후 7. 각부서 및 신심단체 신년도 예산안 제출: 10월27일까지. 양식은 사무실에 있음. 성당청소(26일): 이땅의 빛 밝히오라다Pr.
  - 축! 결혼: 27일 12:30분 신랑-허알베르토 신부-박크리스티나
- 13:30분 신랑-박승호교 신부-옥테레사양
- 금주전례: 해설-오교성 독서-김홍원씨부부 봉헌-정민모씨 가족  
차주전례: 해설-정승훈 독서-강주호씨부부
- ☐ 지난주 봉헌금: 527,350원 ☐ 교무금: 998,6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1. 전교주일: 오늘미사 중 2차헌금 2. 성가집, 청년회: 공식미사 후
  3. 견진: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4. 성서읽기: I 대살로니카 전체
  5. 청소년사: 모든 성인의모후Pr
  6. 사제피정: 21일~26일까지. 신부님을 위해 많은기도 바랍니다.
  7. 성지순례: 11월13일 갈매꽃, 황새바위 회비-칠천원. 선착순접수.
  8. 12/금주전례: 해설-박경래 독서①최경림 ②최영숙 봉헌-이영수, 하월봉 차주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문영호 ②주영애 봉헌-유순천, 유순준
9. 미사시간변경: 평일저녁7:00(화, 수, 목, 토) 금-오전10:30 월-오전6:30
10. 무공해세제, 삼푸판대: 빈집시오
- ☐ 지난주 봉헌금: 235,450원 ☐ 교무금: 207,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용

- ※ 연중 제29주일! (전교주일) 2차헌금있음(로사리오성월!)
1. 회의: ①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다음주일(27일) 오후2시
  2. 모임: ①전례부-10월24일(목)오후8시
  3. 알림: ①본당 전신자 성지순례(꾸리아야외행사겸함)-10월23일(수)오전8시정각 출발, 7시30분까지 집결(시간업수바랍니다.) 점심도시락은 본인이 준비하시오. 음료 및 간식은 본당에서 제공합니다. ②교구사제연례피정 및 세미나관계로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본당미사 없습니다. 신부님피정기간동안 영육간건강을 위하여 많은기도 부탁드립니다. ③봉성체-10월22일(화)
- ☐ 지난주 봉헌금: 590,150원 ☐ 교무금: 22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전교의달: 예비자 인도에 힘써시다.  
전교주일-2차헌금 있습니다.
1. 예비자 교리시간: 목요일 오후7시30분(직장인반) 금요일 오전10시30분(주부반) 토요일 오후5시(학생반) 일요일오전9시
  2. 교구사제연례 피정 관계로 주간중 미사 없음(말씀의 전례및 사제들을 위한기도-매일 오후7시 화, 수, 목, 금)
  3. 견진교리: 26일(토) 오후7시30분
  4. 자모회1일 피정: 29일 오전9시~오후5시 (신청: 신효순 안나 자매, 김질비아 수녀님)
  5. 꾸르실로 수료자: 백순금(가브리엘라)자매
- ☐ 지난주 봉헌금: 561,860원 ☐ 교무금: 324,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1. 오늘은 전교주일: 2차헌금있음.
2. 성진보수헌금 바람. ※「전동100년」화보집 20,000원
3. 성화회: 소록도 방문(오늘-월례회 겸함)
4. 바비의 성모 꾸리아: 오늘 오후2시.
5. 사제피정: 10월21일~25일 장소-나바위 피정의집. 22일부터 미사는 없고 저녁7시만 말씀의 전례가 있습니다. 사제들을 위한 신자들의 기도바랍니다.
6. 다음주: ①교무구 납부주일 ②성마리아 꼬미시움-오후2시. ③초등부 주일학교 성지순례-여산, 천호성지. 참가비: 천원 ※ 금주보수비헌금액: 290,000원 ※ 현재모금총액: 250,187,801원 ☐ 지난주 봉헌금: 1,439,52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 ※ 오늘은 전교주일
1. 교구 사제피정: 21일~26일(이 기간은 말씀의전례로 합니다)
  2. 소록도 방문: 11월4일 예정. 선착순 40명 오늘까지 20,000원.
  3. 환자 봉성체: 24일 전9시, 환자를 모신 가정은 신청바람.
  4. 교도소 재소자 체육대회: 22일 전10시. 후원회 가입 환영함.
  5. 성가신협 관광교육: 25일 전7시 출발(성가신협 앞)
  6. 출연강좌: 매일 끝주일 전9시30분(샌타), 수료증을 제시
  7. 본당은 우리의 가정, 교무구, 신축헌금은 월별로 봉헌바람.
  8. 회의: 꾸리아-오늘 후2시30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9. 김성규(스테파노)가정 축성식: 오늘 후4시.
- ☐ 지난주 봉헌금: 651,960원 ☐ 교무금: 301,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예비자 교리반 첫모임: 27일(일)미사 후
2. 자모회: 오늘미사 후
3. 울뜨레아-청년회: 다음주일 미사 후
4. 전례자 모임: 24일(목) 오후7시(많은 참석을 기다립니다.)
5. 본당에 이사 오시거나 이사를 가신 가정은 교적을 정리해주세요.
6. 사제총회: 21일(일)~23일(수) 화요일 미사없음.
7. 청소년사: 겸손하신자의 모후Pr.
8. 금주전례: 김홍희 독서·봉헌: 김순이·이기남 차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민혜리·유대희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 사목회장 황 수 석
1. 교구사제피정: 21~26(나바위) 교구사제피정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 피정중에도 중전처럼 본당미사가 있습니다. 2. "축" 중교 성가경연대회총창(동상) 국교생 성가경연대회합창(은상) ※ 성가대에 많은참여를 바랍니다. (어머니, 청년) 3. 해미성지순례: 11월10일(화)07:30-오후7시(구역별로 참가하시어 순교정신을 배웁시다. 4. 유아세례: 10월30일(수)저녁미사 중(대상 국2년이하) 5. 견진교리: 성인 매주금(후7시30분) 학생(토후6시) 전진일11월16일후7시 6. 부활반에비자교리: ①일09:30 ②목후7:30 ③금10:40(전교는 신자들의 최대 사망입니다) 7. 성당청소:쁘레시디움별로 보다 깨끗이! 8. 모임안내: ①꼬미시움(토)후3시 ②꾸리아-다음주(수)10시 ※ 교무금실적이 저조합니다. 하느님 뜻을 가장 우선으로 봉헌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55,720원 ☐ 교무금: 1,390,000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첫영성체: 공식미사 중
  3. 유아세례: 26(토)오후2:00 4. 본당신부님 피정중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 기정방문: 22(화)현대1,2번. 23(수)현대3,4번. 24(목)현대5,6번. 25(금)용성6. 뭍담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차주모임-반석회, 요셉회  
금주전례해설: 임창수 독서①엄익도 ②권혜자  
기도①정병태 ②김춘애  
차주전례해설: 박명래 독서①이수원 ②이정옥  
기도①문병석 ②구문순
- ☐ 지난주 봉헌금: 947,790원 ☐ 교무금: 824,000원